

탈락 지역 반발 불가피...투명한 기준 선결과제

●전남권의대 공모선정 전망·과제

불필요한 오해 원천차단 위해 전남연구원 배제 어떤 결과든 승복할만한 '안전장치'도 고민해야

전남도가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키로 하면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경쟁 구도 속에 탈락한 지역·대학의 반발 등 후유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갈등 최소화를 위한 투명한 공모 기준 마련이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온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사전에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국립의대 설립 지역·학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를 강조한 것은 결국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이날 제시한 4대 기준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 업체에 위탁해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부권(순천대)과 서부권(목포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대 설립 방식, 심사위원 선정, 평가 기준, 심사 등 관련 절차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모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전남도가 공모 위탁 후보 기관에서 전남연구원을 배제할 이유 역시 공모 과정·결과에 전남도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남연구원에 의대 선정 관련 공모를 맡기면 가장 간단히 일이 진행되겠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고 전남연구원 배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한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문제는 의대 설립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탈락 지역·학교에서 선정 결과에 100% 승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 어떤 형태로든 문제 제기과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모 절차·기준 마련 시 각 대학으로부터 선정 결과에 승

복하겠다는 사전 약속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어떤 결과나 오든 뒤끝(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정한 진행 관리자로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 진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정해서, 필요하다면 양 대학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겠다"며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정 기자

김원이 "목포대 의대 설립은 상식"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 의원 후보(목포시)는 2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목포 의대 설립은 원칙이자 상식"이라며 국립목포대학교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목포시민은 30여년 전부터 목포 의대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목포대 의과전문대학원 신설과 대학병원 건립을 공약해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섬이 많고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며 "조선업 관련 응급의료 수요 역시 무척 높지만 응급의료 시스템은 부재하고 필수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김영록 지사가 이날 발표한 의대 공모 방식에 대해 "지금까지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목포대 의대,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해 시행했던 연구용역 자료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청사 '열린 청사'로 탈바꿈한다

4월 정례조례회서 개정 20주년 '시민 머무르고 싶은 열린청사' 공개

광주시가 청사 개청 20주년을 맞아 '열린 청사'로 탈바꿈한다.

광주시는 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례조례회를 열어 '시민이 머무르고 싶은 열린청사 조성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정례조례회에서 김광태 주무관(회계과)은 치평동 청사 개청 20주년을 맞아 '시민이 머무르고 싶은 열린 청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광주시는 2022년부터 열린청사 조성을 위해 현안 토론회, 전문가 자문 회의, 선진지 견학,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전담팀(TF) 등을 통해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방재정의 줄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더해 2022-2023년 열린청사 조성 사업 재원을 마련했다.

청사 외부는 시민 편의를 위해 '광장' 기능을 살리기로 했다. 출입 제한, 폐쇄적인 느낌의 시청사에서 시민들이 청사 외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전면 개방감을 확대한다. 또 보행 동선을 가로막는 표지석, 격자형 보도, 지장물 등을 철거하고, 대신 쉼터 등을 마련해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

청사 내부 1층은 시민 이용도가 낮은 시설을 비웠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카페를 새로 열고 캐스퍼 홍보관은 눈에 띄는 위치로 이전하며, 시민 고객 맞이방은 독립 공간으로 꾸미고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회의실 등과 함께 일원화해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열린청사'는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시청사는 시민 행복



광주시청 전경.

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당연하다. 나아가 억울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담론 생산이자 공공이 가진 예술 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공유처가 되어야 한다"며 "행정·정치·문화적 서비스를 신속히 하고 시민들을 따뜻하고 친절히 맞이하는 배려까지 갖춰지면 '열린청사'는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강 기자

전남농기원, 6개 업체에 농업분야 특허권 8건 기술이전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일 "최근 고급 정확도유사영농조합법인 등 6개 업체와 8개 농업분야 도유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하는 지식재산권은 ▲유자 갈변 방지 조성물 및 유자 갈변 방지 방법 ▲항산화능 증진 분쇄형 정제전 제조방법 ▲사료 첨가제 및 사료 조성물 ▲꿀벌 장내 발효균 이용 화분떡 제조

조방법 및 화분떡 ▲신규 미생물 락토 바실러스 균주 JARESN3 균주 및 용도 ▲신규 미생물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JARESN2 균주 및 용도 등 특허 6건과 ▲흑하랑 상표(30류) 1건 ▲포장용 상자(강황&유자젤리) 디자인 1건이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개발 성과로 도출된 이들 특허는 전남도 특산 유자, 차(茶), 강황, 흑하랑 상추를 이용한 식품 가공과 꿀벌 장내에서 분리

한 신규 미생물 및 유자종 사료 관련 분야 기술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업체에 기술이전됨에 따라 제품 생산과 농업 현장 사업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이전된 특허기술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은 물론, 출시될 제품들이 해외 수출로 확대돼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호남·제주 초광역 평생교육 활성화 협력

전남도인재교육진흥원 등 4개 기관 MOU

전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일 호남·제주 소재 평생교육진흥원 3곳과 시·도 경계를 넘어 초광역 평생교육 활성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진흥원과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이다. 이들은 '호남·제주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발족하고 기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사업을 발굴해 호남·제주 지역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전남 지역 평생교육 유관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호남·제주 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협의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초광역 협력 사업 등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전남지역 평생교육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양시원 기자

취급점 모집

당뇨·고혈압으로 고생하십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드신 후 50분 후 당을 체크하십시오.
당일 즉시 30-50mg 이상
당이 떨어집니다.
확인하십시오.
조건 없이 무조건 7일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식약처 등록허가 제품,
특허청 출원 제품,
농협생 산물배상 3억 가입 제품.
문자만 주십시오.

사람을 찾습니다

- 무료 시음회 참석하실 분 -

-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
- 고혈압으로 시달리신 분
- 고혈압, 당뇨 혈당을 정상화하고 싶으신 분
-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
- 말이 필요 없습니다. 50분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조건 없이 7일분 보내드립니다.
- 식약처 허가등록 제품 / 특허출원 등록

OEM ODM 각종 파우치 환 제조하여 드립니다.

대양식품(주) (문자 및 문의) H.P 010-4624-5046 (농협 : 302-0078-2035-31 유한성)
(단, 택배비 소비자 부담 5,000)

마시는 알부민 골드α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 기력이 떨어져 힘들어 하시는 분
- ✓ 바쁜 일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
- ✓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지치신 분
- ✓ 기초 건강 및 건강 증진을 원하시는 분
- ✓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한 직장인, 청소년, 수험생, 노인층

1개월분(30포) : 148,000원

OEM ODM 각종 파우치 환 제조하여 드립니다.

(주) 보람 약품

네이버 카페 마시는 알부민α 검색

주문 : yuhanbio@naver.com
농협 351-1107-2991-93 예금주 유한성

시군 대리점 모집

광주본사 : 010-4624-5046